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시느니라. 잠언 3:33 -
테드 힐드브란트와 Chatgpt의 속담 이야기

조용한 그레이 할로우 마을에는 흰 울타리와 수십 년간의 쓰라린 원한으로 갈라진 두 채의 집이 서 있었다. 울타리 왼쪽에는 엘리아스 그랜저가 살았는데, 그의 부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의 재산은 방대하고 호사스러웠지만, 사랑은 없었다. 오른쪽에는 미리엄이 살았는데, 세 자녀를 둔 미망인으로, 텃밭 하나 없는 소박한 오두막에 살았다.

수년 전, 엘리아스는 이웃을 속이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본래 자기 땅이 아닌 땅을 빼앗는 등 무자비한 수법으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미리엄의 고인이 된 남편도 그런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뭄으로 농지를 내놓아야 했지만, 1년 후 상실의 아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멸과 혐오감에 엘리아스에게 얼굴을 돌렸지만, 미리엄은 엘리아스가 비웃을 때조차 항상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다에서 폭풍이 몰아쳤다. 마을이 본 어떤 폭풍보다도 더 어둡고 맹렬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나무가 쓰러지고 지붕은 양피지처럼 찢어졌다. 엘리아스의 저택은 그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맹렬함을 견뎌낼 수 없었다. 번개가 그의 집 꼭대기에 떨어져 불길이 치솟았다. 불길이 솟아올랐다. 처음에는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

하지만 울타리 너머에서 미리엄의 큰아들이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어머니와 형제들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양동이를 손에 들고 지옥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미리엄은 도움을 요청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존경하게 된

여인의 인도를 받으며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엘리아스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웅장한 저택은 연기로 가득했고, 그의 자존심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엘리아스는 미리암의 현관에 앉아 미리암의 낡은 누비이불을 두르고 고개를 숙인 채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미리암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벽난로를 들여다보았는데, 벽난로 난간 위에는 "여호와와 저주가 악인의 집에 임하나 의인의 거처에는 복을 주신다"라는 수놓은 명판이 있었습니다.

한때 권력자였던 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땅을 돌려주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갚아주고, 집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리엄과 그녀의 친구들이 무너진 집을 복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남은 저택을 팔아 마을 학교 재건에 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부에서가 아니라 눈빛에서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더 이상 탐욕에 불타는 마음은 사라지고, 감사와 관대함,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그는 미리엄의 거실에서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왜 나를 도와주셨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미리엄은 미소를 지으며 낡은 수놓은 명판을 가리켰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와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잠언 3:33).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마침내 그 오래된 잠언의 단순한 진리에서 지혜를 찾은 것이다.